

衣生活의 問題點

서울大學校 家政大學 教授 林 元 子

生活이 科學化됨에 따라 生活樣式이 向上되고 人間의 社會的接觸이 많아지고 그接觸方法과 形態가 또한 多樣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衣生活에서 衣服의 形態의 多樣性과 機能性의 要求度가 높아져가고 있으며 生產面에서도 時間的인 節約과 經濟的面으로 製作의 工業化로 인한 既成服化가 要求되고 있다. 이런점으로 보아 衣生活에서 革新과 經濟性으로 생각해야 할것은 既成化의 問題와 消費問題라고 생각된다.

既成化의 問題

① 體格調查實施問題

衣服製作에서 옛날에는 女性들의 家事中 가장 많은比重을 차지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產業發達과 더불어 既成服化되어가고 있다. 이같이 既成服이 企業化되어가고 있는 이때 가장重要한 것은 몸에 잘맞는 사이즈의 해결문제이다. 千差萬別인 人間의體型에 어떻게 하여는 몸에 꼭맞는 사이즈를 제공하느냐 하는것이 先決問題이다. 이것을 가장먼저 해결한곳이 미국으로 南北戰爭時代 軍服을 大中小로 크게 나눈 것이 始初가 되어 1937年에 美國農務省家政局에서 大規模의 體格調查를 한것이 지금의 美國의 既成服發展에 크게 寄與하게 되었고 지금은 80%以上이 既成服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나라인 日本도 既成服化하기위한 基礎作業으로 1966年부터 全國의 體格調查를 하여 既成服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지금에 既成服化發展에 重要한 資料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縫製品의 生產實績을 보아도 年平均 7%~9%의 증가를 보이던 것이 75年度에는 15%로 대폭 증가하는것을 보아도 점점 既成服의 消費率이 높아지고있으며 이것은 消費者로서의 要求가 높아져가고 있음을 알수있다. 衣服의 基本의 機能性을 위하여 重要한 研究課題가 體格調查 및 體型의 研究이다.

人間은 모두가 體型이 같을 수 없고 특히 外國과 우리 나라 사람과의 體型에는 特徵的인 差位가 있다. 이런점을 우리나라에서는 全國的으로 大規模의 體格調查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外國의 것을 모방하거나 小規模의 調查로인한 資料로서 無理한 既成服의 製作때문에 既成服利用에 年齡과 體型層이 制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만들어진 衣服은 體格이 그옷에 맞게되어 있는 사람만이 利用하게 되며 또한 어느程度 着用이 可能해도 衣服의 不自然스러움으로 動作에妨害가되고 無理스러운곳은 쉽게 트더지고 찢어지곤 하여 옷의壽命이 짧아져서 國家的으로 볼때 材料와 勞動力의 浪費가 되고 個人的으로는 家計의 浪費뿐만이 아니라 여려면으로 非合理的인 要素가 생기게 된다. 다음 표 2 와 표3을 보면

표 1. 縫製品 生產實績

단위 : 千장

年 度	輸 出 用	內 需 用
70	107,692	408,738
71	196,211	443,844
72	235,340	486,186
73	294,747	534,804
74	382,352	580,000
75	510,000	667,000

자료 : '76.7.1 中央日報

표 2. 기성복의 만족도

(주문복에 비해 별로 손색이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	9.7
어느정도 그렇다	31.0
모르겠다	12.0
어느정도 그렇지 않다	34.5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12.7

자료 : '72年度 IWS調査報告書

표 3. 기성복의 만족도

(단위 : %)

옷종류	꼭 맞는다	어느정도 맞는다	잘 안맞는다	절대 맞지 않는다
투피스	1.5	28.1	59.9	11.9
원피스	8.1	49.3	35.9	7
블라우스	11.8	48.5	37.0	2.9
스커트	3.3	42.6	51.5	8.2
코트	2.2	31.9	53.3	12.6

자료 : 71年度 林元子 大韓家政誌 第9號2卷

현재 우리나라의 기성복의 만족도에 관한 調査에서도 아직 별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잘 안맞는다는 意見이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아직 기성복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衣生活의 科學化 및 經濟性을 생각하여 혁신해야 할 문제는 全國的으로 體格調査를 實施하므로서 標準치수를 設定한 基礎資料로서 이루워져야만 우리나라의 衣料의 浪費性을 막을 수 있고 既成服의 發展이 이루워져 家庭과 國家의 衣生活의 合理化와 消費性의 혁신이 이루워질 것이라고 본다.

② 縫製問題

표 4는 女子大學生 100名, 職業女性 100名, 主婦 100名을 對象으로 縫製面을 消費者側으로 본 調査結果이다.

표 5는 既成服의 短點을 主婦 100名, 教師 1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것이다. 이結果에 依하면 縫製面에서 不滿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衣生活의 經濟面의 損失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여기에 關한 研究의 重要性을 提示해 주고 있다. 縫製面에서는 技能工의 科學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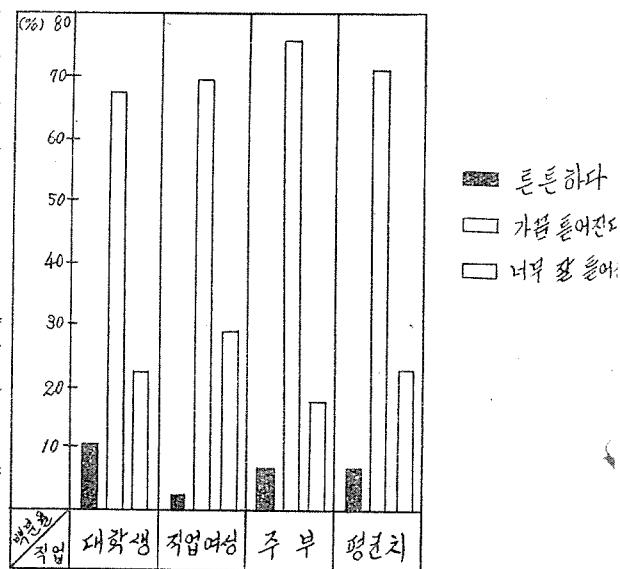


표 5. 기성복의 단점

문	항	주 부	교 사
① 천이 좋지 않다	4.2%	9.4%	
② 값이 비싸다	2.7	3.8	
③ 마음에 맞는 색과 무늬가 없다	6.9	5.6	
④ 잘 들어든다	3.0	1.9	
⑤ 빨면 모양이 방가진다	10.7	19.4	
⑥ 시접이 적다	7.5	8.1	
⑦ 몸에 맞는 옷이 없다	8.9	20.6	
⑧ 바느질이 튼튼하지 못하다	51.6	21.3	
⑨ 마음에 맞는 모양이 없다	3.9	8.7	
⑩ 기타	0.6	1.2	

자료 : '76 建國大家政大學報

의 技術의 習得이 必要하고 熟練된 技能工의 배 출이 重要하다. 또한 이들의 資格을 制度化하여 技術水準이 미달되거나 無許可工場에서 유출되는 것을 막어야 한다. 縫製에서 研究되어야 할 問題는 織物과 紡織의 關係, 바느질감과 옷감과의 關係에 關한 科學的인 研究가 우리나라 衣料事情에 맞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破裂이 생기고 트더지 곤하여 옷의壽命을 제대로 持續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生產되는 裁縫糸의 種類가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옷감에

갖는 실의 선택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問題性을 解決하므로서만이 既成服이 제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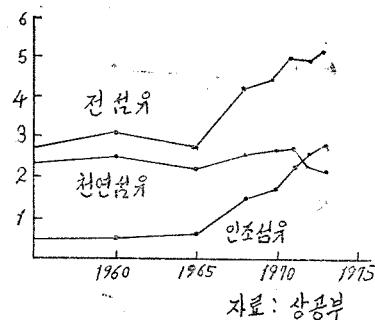
② Design問題

世界的으로 衣生活의 變化는 生活의 向上과 더불어 生活이 바빠짐에 따라 活動的인 衣裳을 要求하는 것이 높아지고 있으며 正裝에서 벗어나 간편한 服裝의 嗜好로 흐르고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着用方法에 對한 률이 없어져가고 있으며 이 같은 變化는 歐美的 경우 여가를 즐기는 스포츠나 기타레저生活이 日常化되고 있는데 기인된다고 할수 있고 형식적인 겉치레보다 현한것을 택하는 合理的思考方式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生活水準이 向上되므로서, 쉽게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같은 痾으로 多樣하게 變化를 주는 옷차림을 하겠다는 經濟的 要因으로 作用된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디자인”面에서도 항상 世界的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生活狀態를 調查하여 그것에 맞추어 “디자인”面에서도 機能性에 關한 研究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③ 衣料問題

우리나라의 衣料事情은 표 6과같이 消費量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 7에 나타난것같이 우리나라의 면이나 모의 消費量은 世界的인 平均消費量에는 이르지 못하나 인조섬유의 경우 消費量 水準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의 生산 현황을 보면 1960年代以後 날로 發展해왔으며 1973年的 수출순위는 20위선까지成長하게 된것은 섬유제품의 輸出이 많이 增大하였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면섬유는 면화를 대부분 外國에서 輸入하는 것에 의존하므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織物은 總生產量의 90%가 輸出用이라고 한다. 毛纖維는 羊의 生產이 어렵기때문에 海外로부터 거의가 輸入되고 있다 絹纖維도 生產이 부진하였으나 1973년부터 많은增產과 輸出을 이룩하고 있으며 化學纖維는 기초화학원료를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화학섬유의 생산량을 보며는 “폴리에스터르” “나일론” “아크릴”的 순으로 되어 있다. 이상과같이 纖維의

표 6.



자료: 상공부

표 7. 주요국의 섬유 1인당소비량(kg)

국명	면	모	인조섬유	전섬유
한국	2.1	0.1	2.5	4.7
북한	1.2	—	0.1	1.3
일본	6.0	1.5	7.6	15.1
자유중국	3.4	0.1	2.6	6.1
타일랜드	1.8	—	1.0	2.8
인도	2.0	—	0.2	2.2
이집트	3.0	0.3	0.4	3.7
소련	7.2	3.1	3.0	13.3
타이키	4.7	0.9	1.2	6.8
이탈리아	4.5	2.0	4.4	10.9
서독	5.4	2.3	8.8	16.5
미국	4.8	1.9	7.6	14.3
영국	8.9	0.9	11.2	21.0
세계평균	3.2	0.5	2.2	6.0

자료: FAO

표 8.



國民生活의 科學化 衣

변천에 따라 衣服材料도 多樣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消費者的 衣生活의 경향이 되도록 가벼운 것, 촉감이 좋은 것, 위생적인 것, 다루기 쉬운 것 등으로 要求되고 있다. 표 10의 우리나라의 섬유소비구조를 보면 천연섬유는 줄고 인조섬유는

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衣生活의 重要한 도구인 섬유에 對한 研究와 充分한 知識을 가지도록 하고 材料選擇의 合理的方法으로 衣服의 着用壽命의 延長을 위하여 既成服에 기여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표 9.

화학섬유 생산량

(단위 : 1,000kg)

	비스코우스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폴리프로필렌	P.V.A	폴리에스터	계
1970	5,315		15,813	1,559	3,311	157	9,438	53,085
1971	5,809	23,963	17,801	2,298	5,138	—	19,798	24,807
1972	6,479	28,523	24,255	2,589	6,630	—	28,872	97,349
1973	6,035	36,356	28,361	2,809	7,485	608	40,301	121,955

자료 : '74年度 섬유연보

消費問題

衣料와 既成服의 生產現況을 보며는 1960年以後 大量은 生產技術의 進步를 가져왔으나 原料面에서는 极히 不足한 狀態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허한 資源問題로 볼 때 外國보다 奢侈와 浪費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衣類費支出에서 節約해야 한다는 점이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被服費는 一般的으로 家計總支出의 11±% 程度가 標準인데 비해 外國의 경우 블란서가 9.2% 영국이 7.3% 독일이 9.1%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被服費支出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2에도 나타났듯이 家

표 11. 歐洲人의 年間衣類費 支出率

단위 : %

	독일	불란서	이태리	벨기 및 룩셈부르크	영국
연간 수입에 대한 의류비 지출 비율	9.1	9.2	9.2	11.5	12.6

자료 : '72년도 美 Cloth誌

에서 被服費支出이 가장 높고, 農村과 都市의 差位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나라 女性들의 經濟的生活態度의 反省이 必要하게 된다.

以上과 같이 衣生活의 높은 消費性을 막기 위하여서는 우선 衣生活의 合理的管理方法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衣生活의 計劃을 年間, 月間, 週間으로 細部의 計劃案을 세워야 한다. 計劃案을 세울 때

① 家族의 年齡 性別 嗜好, 生活觀을 調查하고 파악해야 한다.

② 衣生活을 行하는 環境狀態를 파악한다.

③ 現在까지의 衣生活의 現狀, 生活行動範圍를 調査한다.

④ 家計의 內容과 經濟狀態를 調節한다.

⑤ 資料의 需給狀態

⑥ 管理用의 機械 器具의 狀態

⑦ 管理上의 必要한 技術技能을 파악한 다음 計劃을 세워야 한다. 다음에 衣服의 購入에서 必要한 要素인 材料 “디자인” 性能 色彩 數量

표 10. 섬유소비구조 (단위 : %)

	천연섬유	인조섬유	전 섬유
1963년	84.5	15.5	100.0
1964년	82.3	17.7	100.0
1965년	80.3	19.7	100.0
1966년	74.7	25.2	100.0
1967년	70.1	29.9	100.0
1968년	67.5	34.5	100.0
1969년	61.5	38.5	100.0
1970년	60.3	39.7	100.0
1971년	53.0	47.0	100.0
1972년	49.0	51.0	100.0
1973년	46.9	53.0	100.0

자료 : '74년도 상공부섬유연감

표 12.

都市와農村의 消費水準比較

農村 : 100

	1968年		1969年	
	도시	농촌	도시	농촌
所 得 費	159.8	100.0	153.1	100.0
消 費	182.6	100.0	176.9	100.0
食 料 費	166.1	100.0	155.7	100.0
住 居 費	627.6	100.0	743.1	100.0
光 热 費	114.2	100.0	109.7	100.0
被 服 費	230.4	100.0	222.9	100.0
雜 費	141.6	100.0	135.6	100.0

자료 : 농림부, 경제기획원

時期 方法 經費等을 생각하여 計劃 한다. 最近에는一般的으로 被服의 所持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必要한 것부터 생각하여 겉옷 중간 웃 속웃등 着用部位別로 나누고 또한 生活의 行動別로 나누워 活用狀態를 調查하여 購入해야 한다. 또한 既成服化됨에 따라 선택을 잘하여 着用壽命을 길게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既成服을 고쳐 입을수있는 能力도 必要하게 된다. 그러므로 着用에 있어서 機能의이고 衛生의이어야 하며 個性美를 살려 目的, 場所時期에 맞도록 着用計劃을 세워 人品과 秩序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 着用의 多樣性을 생각하여浪費를 막아야 한다. 또한 整理에서 清潔하게

하므로서 衛生, 容儀, 耐久性을 생각해야한다. 最近에는 家事勞動中 整理面에서 較減되고 있다. 이것은 衣服材料의 多樣化로 專門業에 依賴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必要한 經費가 增加되므로 洗濯, 손질, 뒤처리 등의 經費를 週間 日間으로 計劃을 세우므로 支出을 막아야 한다. 또한 保管에서도 用途別 織維別 着用別로 分類하여 溫度, 濕度, 防虫등의 科學的인 保管法으로서 衣服의 壽命을 길게해야 한다. 住宅事情으로 保管이 문제가 될때는 保管業(trunk Room)에 달기는 方法도 있으며 이러한 철저한 保管業은 우리나라 衣料界에 經濟面을 돋는데 重要한 구실을 할 것이다.

國民生活의 科學化 衣

衣 著者 朴學範